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회상과 조감(鳥瞰)의 시선*

—〈운영전〉·〈최척전〉·〈강로전〉을 중심으로—

조현우**

〈차 례〉

1. 서론
2. 전란의 회상 - 초월적 위치에서의 조망
3. 소급적 인과관계와 동시성의 체험
 - 1) 소급적 인과관계의 설정
 - 2) 조망하는 서술자와 동시성의 체험
4. 조감의 시선 출현과 그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6~7세기의 전란 체험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서사화와 소설 쓰기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는 전란의 체험과 그 기억이 소설의 창작 및 향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2장에서는 전란의 회상에 드러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의 문제를 살폈다. 자기 정당성 확보의 욕망에서 기록된 실기 문학에는 과거에서 현재 상태의 원인을 발견하는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방식의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또 실기 문학에는 고국과 일본이라는 내셔널한 공간의 분리와 추상적 시간에 대한 동시성의 체험도 발견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회상되는 과거 바깥의 초월적 위치에서 과거부터 현재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3장에서는 17세기 소설들 몇 편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발견되는 변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실기 문학에서 발견된 서술 방식과의 상동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강로전>과 <최척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에서는 소급적 인과관계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로전>에 드러나는 밑지와 강홍립의 역심은 강홍립을 일관된 악인으로 그리고 작자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도입된 설정이었다. <최척전>의 장류불은 가족의 최종적 재회를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마다 도입된 설정이었다. 두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후적 인과관계의 설정은 결국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운영전>과 <최척전>에는 동시성의 체험이 나타난다. <운영전>에서 서술자로서의 운영은 회상되는 과거 바깥에 위치하면서 여러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알고 서술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이 흐르는 추상적인 시간의 동시성이 발견된다. <최척전>에서 서술자는 최척과 옥영이 재회할 때까지 두 사람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의 행동을 번갈아 그러나 동시적으로 서술한다. 이때 서술자는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을 모두 조망하는 위치에서 추상적인 시간의 동시성을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초월적 위치에서의 서술을 ‘조감의 시선’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그러한 시선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폈다. 회상담이란 기억의 주체가 자신이 겪은 일 혹은 전란 체험을 진술하는 것이기에 일정한 경계를 갖게 된다. 그 경계는 경계 ‘바깥’을 만들어내는데, 이야기 ‘바깥’에서 기억하고 회상하며 진술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소설에서 서사적 진행, 즉 사건과 사건의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몰입은 서사의 ‘바깥’에서 그 서사를 진술하고 평가하며 인과적 연쇄를 만드는 어떤 위치에 대한 감각에서 만들어졌다.

□ 포로실기, 전쟁, 소급적 인과관계, 동시성의 체험, 조감의 시선

1. 서론

17세기는 소설의 시대로 불린다. 한국 소설사에서 중요한 작품들이 17세기에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독자, 양식 등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기 때문이다.¹⁾ 그런데 이 시대는 전란과 대기근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란이 휩쓸고 간 시대에 소설이, 그것도 다량으로

창작되고 향유될 수 있었던 것일까? 또 전란의 체험과 기억은 소설이라는 장르의 성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소설에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전란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²⁾ 이러한 의문은 전란의 소재적 활용이 아니라, 전란의 체험이 어떻게 서사로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러한 서사화와 소설이라는 장르의 창작 및 향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소설의 양상이 그 이전 시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을 밝혀내고, 그것이 전란의 체험 및 그 기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17세기 소설의 변모를 전기(傳奇) 양식의 변화나 중국 소설의 유입과 같은 요인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란 체험과 기억에서 드러나는 욕망과 그것의 서사화 방식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17세기 소설의 특징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6세기와 17세기의 전란들이 문학사에 미친 영향 중 하나는 전란을 기록한 다수의 실기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러한 실기 작품들이 ‘회상’이라는 서술 방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회상이란 과거를 기억하는 행위이기에 현재와 과거라는 두 가지 시점과 그 시점에 속한 두 개의 자아를 만들어낸다.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가 한 행위를 기억하고 서술하는 일이 회상이라면, 이는 어떤 욕망의 문제, 즉 ‘과거를 왜 기억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현재의 자아는 무엇인가를 위해 때로 회상하는 것 자체가

1) 김중철,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 성현경교수 추모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85~138쪽.

2) 전란이 소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권혁래, 『조선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248쪽;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 소재와 그 의미』, 보고서, 2007, 1~319쪽.

고통일 수도 있는 전란의 기억을 애써 떠올려 서술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서술 방식으로서의 회상을 온당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과거를 왜 기억하는가?’의 질문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를 왜 기억하는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실기 문학은 피로인들의 전란 기억이다. 임진왜란 당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던 이들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생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생존 노력이 폄훼되고 심지어 ‘변절자’라는 의심³⁾을 받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토록 돌아오고자 했던 고국에서였다.⁴⁾ 피로인들은 전란의 와중에 포로가 끌려갔다 돌아온 자신들을 비난하는 시선에 맞서 자신들이 훼손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 피로인뿐만 아니라 전란이 끝난 ‘현재’, ‘과거’의 행위가 비난과 의심의 대상이 된 인물들은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틀리지 않았음을 글로써 입증하고자 시도했다.⁵⁾ 따

-
- 3) 요네타니 히토시는 피로인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결국 그들이 왜군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 - 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85~112쪽.
- 4)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었다가 1599년에 생환한 인물인 정호례(鄭好禮)의 사례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정유피란기(丁酉避亂記)』를 남긴 정호인(鄭好仁)의 동생으로, 정묘호란 때 공을 세워 말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1630년에 ‘사람됨이 비루하고 용렬한 데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사간원의 비판을 받았다. 사간원은 강홍립의 휘하였다가 이 시기 소무원종공신이 되었던 권척(權弼), 복인 출신으로 같은 복인인 유효립의 역모사건을 고변해 영사원종공신이 되었던 신서민(申瑞民) 등을 정호례와 함께 거론하면서, 이처럼 ‘비난받을 만한 과거’를 지닌 인물들이 작은 공을 세웠다고 해서 관직을 제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로인이었던 그에 대한 의심과 비난의 시선이 30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5) 이러한 관점에서 포로실기와 같은 전쟁의 기억을 담은 실기 문학을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서사’로 바라보고, 기억의 서사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

라서 이러한 글의 작자들이 자신의 글에 대해 ‘사실 그대로의 기록’을 표방한다고 해도, 이를 ‘사실 그대로’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실기 문학 작품들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욕망에서 이루어진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실기 문학이 17세기의 소설사와는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특히 기억의 서사화 방식을 정밀하게 탐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과거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또 그 과정에서 포착되는 특징적인 서사화 방식은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선에서 17세기 소설사를 살필 때, 과거를 회상하거나 고백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소설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가령, 안평대군 시절의 일을 회상하는 서술자가 등장하는 <운영전>이나, 최적으로부터 그들 부부가 겪은 기이한 과거 경험담을 듣고서 기록한 형태를 취하는 <최척전>, 우연히 만난 노승에게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소설인 <강로전>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이 소설들은 <운영전>처럼 전란이 끝난 이후의 분위기를 담고 있거나, <최척전>과 <강로전>의 경우와 같이 전란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소설에서 드러나는 서사화 방식이 전란의 기억 서사와 어떤 상동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는 전란이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7세기에 나타난 몇몇 소설들, 특히 전란의 체험이 담긴 소설들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전란의 기억이라는 서사화 방식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가 ‘실기에서 소설로’와 같은 단선적

적 재구,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5~36쪽;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민족문화사연구』 54, 2014, 185~214쪽.

이고 직접적인 연결을 위한 것은 아니다. 소설사에서 17세기는 뛰어난 소설들이 축출했던 시기다. 그렇다면 그러한 소설의 분출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유일한 원인을 찾는 일은 부질없는 것일 수 있다. 전란과 그것에 대한 기억의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소설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일은 소설의 축출과 관련된 여러 원인 중 하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전란의 회상 - 초월적 위치에서의 조망

자기 정당화의 욕망에서 과거를 기억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아가 과거부터 현재를 일관된 서사로 만들고자 시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서사화는 몇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현재의 자아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간 전체를 조망하면서 자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행위들을 어떤 논리로 연결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과거 어느 시점의 나로부터 어떻게 현재의 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논리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나에 대한 자기 정당성 확보는 곧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나'라는 자기 정체성 확립과 연결된다.

전란을 기억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서술 방식과 문학사에서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시선이 발견된다. 이러한 서술 방식과 새로운 시선은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는 실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서술 방식과 시선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한편, 임진왜란 전의 일도 가끔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그로부터 비롯되었

기 때문이다. 아아, 임진년의 재앙은 참담하였다. 수십 일 사이에 한양·개성·평양의 세 도읍을 상실하였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며 임금이 피난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지금과 같이 평화를 되찾은 것은 하늘 덕분이다. … (중략) … 근심과 두려움이 조금 진정되어 지난날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황송하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에 한가한 때에 임진년[1592]에서 무술년[1598]에 이르는 사이에 보고 들은 일을 대강 적어 모으니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었고, 장계(狀啓)·소차(疏筭)·문이(文移)·잡록(雜錄)을 그 뒤에 붙였다. 비록 불만한 것은 없지만 이 또한 그때의 일이니 버리지 못한다. 이로써 시골에 살면서도 간절히 충성을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어리석은 신하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였지만 공을 세우지 못한 죄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이라.⁶⁾

위의 인용문은 류성룡이 지은 <징비록(懲毖錄)>의 일부이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전쟁 당시의 행적과 강화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북인들의 집중적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가 칩거했다. <징비록>은 그러한 칩거 기간에 기술된 글이다. 인용문은 이 책의 서문으로 이 글에서 류성룡은 <징비록>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의 일들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기록한 것임을 밝힌다.

그런데 그가 밝히는 이 글의 집필 목적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먼저 그는 죄인으로 자처하면서, 이 글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작성한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볼 때, 전란에 대한 기억인 이 글은 류성룡이 자신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 작성하는 참회록으로서의 성

6) <懲毖錄>者何? 其亂後事也. 其在亂前者 往往亦記 所以本其始也. 嗚呼 壬辰之禍慘矣. 浹旬之間 三都失守 八方瓦解 乘輿播越 其得有今日 天也. … (중략) … 憂悸稍定 每念前日事 未嘗不惶愧靡容. 乃於閑中 粗述其耳目所逮者. 自壬辰之戊戌 總若干言 因以狀啓疏筭文移及雜錄 附其後 雖無可觀者 亦皆當日事迹 故不能去. 旣以寓畎畝惓惓願忠之意 又以著愚臣報國無狀之罪云. 류성룡,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징비록』, 아카넷, 2013, 77~79쪽.

격을 갖는다. 그러나 <징비록>을 일종의 참회록으로 읽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작자가 전쟁 중에 했던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징비록>의 초반은 주로 ‘전란의 조짐이 있었다.’, ‘나는 이를 인지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진행은 결국 ‘내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표면적으로 밝힌 참회 혹은 속죄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변론이자 자기 정당화를 위한 기록이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포로실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순수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기억과 서사화의 관계이다. 류성룡은 이 책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임진왜란 ‘이전’의 일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징비록>은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던 1592년부터가 아니라 그로부터 6년 전인 1586년에 일본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 조선에 왔던 사건부터 시작된다. 류성룡은 이렇게 임진왜란 ‘이전’의 사건까지 기록한 것은 “임진왜란이 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시작을 다치바나 야스히로의 방문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조선의 대응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치바나 야스히로의 조선 방문을 전란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전란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야 가능한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류성룡은 임진왜란의 시작을 과거에서 ‘발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윗글에서 류성룡은 임진왜란 발발 초기 조선이 얼마나 급속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회고한다. 그에 따르면 전란 직후 조선은 고작 “수십 일 사이에 한양·개성·평양의 세 도읍을 상실하였고 팔도가 와해되었으며 임금이

피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빨리 조선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임진왜란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고 따라서 대비할 수도 없었던 사건이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류성룡은 일본 사신의 방문이 전란의 시작이었으며, 그 조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든 사태가 끝난 이후 그가 전란을 되돌아보는 어떤 ‘위치’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에는 전혀 몰랐거나 충분히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의 의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모든 사태가 끝난 현재, 과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중 현재의 ‘결과’를 야기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별해 그것을 현재의 ‘원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실 이러한 진행 혹은 연결이란 자기 정당화의 목적을 서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과거의 사건들을 점검한 후 그중 원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을 발견하고, 그것과 이후 사태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것일 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징비록>에서 나타나는 임진왜란의 시작과 그에 대한 평가는 자기 정당화의 목적을 위해 사건을 소급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서사화 방식은 ‘인과관계의 역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선후(先後)의 문제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발생 순서로 볼 때, A가 먼저이고 B가 나중인 두 사건이 있다고 하자. 둘 사이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①‘A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B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인과관계의 역전이란, ②‘B가 발생한 후 그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들 중 A를 선택해 그 원인으로 규정한다.’로 정리 가능하다.

②는 어떻게 해서 생겨날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단히 돌발적인 사건 E를 상정해 보자. 굳이 ‘돌발적인’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은 사건 E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발생하리라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사건 E가 일단 발생하고 나면,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겪은 주체에게 ‘서사화’되어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서사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건 E가 완전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태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사건 E의 돌발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주체는 그 사건이 준 객관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사태와 자신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관적 고통까지 겪어야만 한다.⁷⁾ 따라서 사건 E를 겪은 주체는 그것의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성격을 제거하고 그 이전 사태와 사건 E의 발생, 그리고 사건 E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사태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과정을 거치면, 사건 E는 그 이전 사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었거나 심지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자 현재 상태를 초래한 원인으로 규정된다. 사건 E는 이제 더 이상 돌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서사에 통합될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주체에게 수용 가능한 사건이 된다.⁸⁾

7) 어떤 사람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고난을 겪게 되었다고 해 보자. 그는 이러한 고난이 어디에서 왜 왔는가에 대해 알 수 없다. 이때 그는 고난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도 고통스럽다. 따라서 그는 그 고난의 근원을 추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가 과거에 행했던 어떤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는 자신의 고통을 그러한 잘못의 대가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고난으로 인해 생겨나는 두 가지 고통 중 하나가 제거된다. 그는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통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관계는 현재의 고통이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소급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8) 이 글에서 논의하는 ‘인과관계의 역전’은 데리다가 언급한 ‘전(前)미래’(future

위에서 언급한 사건 E의 자리에 16~17세기의 전란과 그 와중에 생겨난 피로(被虜) 등의 사건을 넣을 때, 전란의 '회상'이라는 서술 방식이 갖는 독특한 면모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자아인 회상의 주체가 과거의 자아가 겪은 일을 기록할 때, 두 개의 자아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인지적 간극이 생겨난다. 회상 주체가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서사화하려 할 때 인과관계의 역전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서사가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하거나 인지 가능하지 않았던 거대한 전란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인과관계는 현재의 상태가 왜 초래되었는가를 대단히 잘 설명해준다. 그 이유는 원인에서 출발해 결과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결과에서 출발해 원인을 발견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높은 설명력 때문에 그것이 본래 '역전된' 인과관계였음은 쉽게 잊혀진다.

이와 같은 소급적이고 사후적인 인과관계는 역설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위한 서사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사건들의 연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어떤 '인과적 선(線)'이 필요했던 셈이다. 또 이러한 역전된 인과관계는 회상의 주체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태들을 특정한 위치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과거를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주체는

antérieur) 개념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데리다는 성서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을 사례로 들어 전미래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기록이 마치 실제로 존재했던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태초 혹은 기원이라는 것은 말씀이 있었던 우발적 사건의 사후적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과적 흐름을 만들어냄으로써, 사건의 우발성은 소거되고 재구성된 서사의 과정에 편입되고 만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11~62쪽.

그 이야기 ‘바깥’의 초월적 위치에서 사태를 조망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때만, 현재 사태를 초래한 원인으로서의 사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류성룡이 일본 사신의 방문을 임진왜란의 시작으로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신의 방문이 있었던 시점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이 아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이후 현재로부터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 ‘전체’를 조망하면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인과적이고 일관된 서사를 만들고자 했을 때, 비로소 그 방문이 전란의 ‘시작’으로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급적 인과관계의 형성은 결국 특정한 목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과적 연결은 그 자체로 회상하는 주체가 초월적인 어떤 위치에서 과거를 조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 온 뒤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니 때는 이미 늦봄이어서 온갖 감회가 밀려오는데, 고국에는 끝내 돌아갈 날이 없고 이 몸은 한스럽게 남의 나라에 있다. 지금의 아파주는 옛날의 복해이다.⁹⁾

죽순을 먹다가 홀연 절기가 이미 저물어가는 것에 놀라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일본 땅은 따스한 곳이기 때문에 만물이 늘 일찍 자랐다. 면전에서 날마다 지난날 어버이께 봉양하던 음식이었다.¹⁰⁾

위의 인용문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생환한 정경득(鄭慶

9) 雨後聞鳥啼聲 時已殘春 百感交集 故國終無歸日 佗邦恨有此身. 今之阿波 古之北海也(무술년 3월 18일). 정경득, 신해진 역, 『호산만사록』, 보고사, 2015, 81쪽.

10) 食竹筍 忽驚節序已晚 心腸如摧 日本之煖 故百物常早盛 面前日供親物也(무술년 4월 26일). 같은 책, 89~90쪽.

得)의 <호산만사록(湖山萬死錄)> 중 일부이다. 이 글은 류성룡의 사례와는 또 다른 초월적 위치에 대한 감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정경득은 새소리를 듣거나 죽순을 맛보다가 계절을 느끼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간취된다. 정경득은 자연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자각한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자각은 동시에 그가 고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그 계절을 보내고 있음을 아프게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새소리나 죽순과 같은 자연물은 시간적 체험인 동시에 공간적 체험이다.

정경득의 체험은 조선에서라면 깨닫지 못했을 독특한 어떤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령, 죽순은 정경득에게 매우 복합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죽순은 일차적으로 늦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맛보는 죽순이 조선과 동일한 시간을 알려주는 지표는 아니다. 그는 부모에게 죽순을 따 봉양했던 기억을 떠올리다가, 일본의 따뜻한 기후로 인해 죽순을 먹는 시기가 조선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는다. 따라서 죽순은 일본과 조선에서 공통되는 봄의 계절적 지표이면서도, 그것이 환기하는 구체적 시간은 미묘하게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미묘한 차이는 정경득에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이 된다.

이때 정경득은 죽순을 통해 자신이 조선이 아니라 일본에 와 있다는 공간적 분리를 자각하는 것과 함께, 두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흐르고 있는 추상적 시간을 체험하고 있다. 이는 만약 그가 두 나라 중 한 곳에서만 죽순을 먹었다면 알 수 없었을 동시성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에서 죽순을 통해 환기되는 조선의 시간과 일본의 시간을 동시적으로 그러나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정경득의 이와 같은 동시성의 체험은 그가 자신이 살던 곳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특히 일본과 ‘고국’이라는 내셔널한 경계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가능했다. 즉 그는 “나는

한스럽게도 [‘저기’ 고국이 아니라 ‘여기’] 타국에 있다.”는 공간적 자각을 시간적 지표를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시간에 대한 체험은 사실 피로인들의 글, 특히 ‘일기’ 전체에 해당한다. 피로인들은 자신들이 포로가 된 시점부터 돌아오기까지 누굴 만났고, 어떤 시를 썼으며, 무엇을 했고 하지 않았는가를 열심히 기록해 남겼다.¹¹⁾ 일기 자체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드물지 않았지만, 피로인들의 일기는 예상 독자를 명확히 정해두고 쓴 글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것과는 구분된다. 이들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음을 귀환한 이후 보여주기 위해 일기를 썼다. 가령, 이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선을 바라보며 망궐례(望闕禮)를 행하고 이를 일기에 기록한 것은 고국을 향한 충심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결국 피로인들의 일기는 조선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은 일본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이러저러한 귀환 노력을 했음을 기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피로인들의 실기 문학에서 앞에서 언급한 소급적 인과관계와는 다른 경로로 만들어지는 초월적 위치에 대한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실기에서 시간은 추상적이고 균질적인 시간이다. 가령 정경득의 사례에서처럼 일본에서 죽순으로 환기되는 시간적 지표가 조선과 다르다는 체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조선과 일본에서 추상적이고 균질적인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한 셈이다. 조선이나 일본에서 각각

11) 포로실기에 등장하는 시에는 당시 피로인들이 느꼈던 감정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시 속에도 ‘예상 독자’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충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피로인들의 한시에 나타난 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윤인현, 『〈해상록〉과 〈정유피란기〉 연구-일본 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2, 근역한문학회, 2011, 139~173쪽; 조용호, 『정유제란 포로 실기 속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133~180쪽.

의 시간만을 경험하는 주체라면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이때 그 추상적 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체는 조선과 일본이 모두 포함된 거대한 공간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본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선에도 같은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조선과 일본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초월적 위치에 있을 때만 가능한 깨달음인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전란의 기억, 특히 피로인들의 실기 문학에는 자기 정체성 확보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서술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때 과거에서 현재 상태의 원인을 발견하는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방식의 인과관계가 생겨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이 결과에서 출발해 발견된 원인임이 망각되고, 자연스러운 인과적 연결처럼 간주된다. 이는 과거로부터 현재의 시간을 회상되는 과거 바깥의 위치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또 이러한 위치는 고국과 일본이라는 내셔널한 공간의 분리와 추상적 시간에 대한 동시성의 체험에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이제 서사의 바깥에서 서사 전체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시선과 내셔널한 경계의 분리로 인한 동시성의 체험이 17세기 소설들에서 나타나는 특징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필 차례다.

3. 소급적 인과관계와 동시성의 체험

1) 소급적 인과관계의 설정

권칙(權弼)의 <강로전(姜虜傳)>은 작자 자신이 참전했던 1619년의 심하전투에 대한 회상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권칙은 이 작품 말미에서

강홍립의 서기였다는 노승을 등장시키고, 이 글이 자신의 회상이 아니라 그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강로전>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창작된 시점이 1630년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심하전투가 끝난 직후 이 글을 창작한 것이 아니다. 1627년 이인거의 난에서 공을 세워 소무원종공신으로 녹훈된 이후에도 벼슬길이 열리지 않자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글을 썼던 것이다. 권칙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여 <강로전>을 썼다. 그런 점에서 <강로전>은 강홍립을 오랑캐에 빌붙은 인물로 그리면서 그와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었다.

권칙이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장치 중 하나는 강홍립이 광해군에게 받았다는 ‘밀지’이다. 밀지가 실재했는가는 사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지만¹²⁾, 이 작품에서는 강홍립의 말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강홍립은 그 자체가 비밀이어야 할 밀지의 존재는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서사에서 밀지는 전쟁에 참전했으면 서도 싸우려 하지 않는 강홍립의 모습을 그럴 때마다 등장한다. 이에 따라 강홍립을 제외한 나머지 장졸들은 충분히 싸우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항복의 명에를 쓰게 된 피해자로 그려진다. 심하전투에 대한 이러한 서술에는 강홍립과 밀지를 내린 광해군 때문에 작자 자신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강로전>에서 강홍립은 조선 귀환을 앞두고 갑자기 ‘역심’이 생겨났다가 귀환 이후 그것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포기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사료를 통해 보면 강홍립은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역심을 갖고 있다는 비난은 없었다. 따라서 권칙은 실제와는 무관하게 이 설정을 서사에 포함했다고 할 수 있다. <강로전>은 심하전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후금군에 항복한 이후 강홍립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룬다. 심하전투가 끝난 직후 조

12)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149~211쪽.

선에 돌아온 권척이 후금에서 강홍립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권척이 심하전투 이후의 강홍립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1627년의 정묘호란 때문이다. 강홍립은 청나라 군대와 함께 귀국했고, 그를 변절자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¹³⁾ 권척은 바로 이 시기 말직 벼슬을 제수받았다가 밀려나면서,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던 것이다.¹⁴⁾

<강로전>에 나타난 밀지와 강홍립의 역심은 결국 그가 철저한 변절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작자 자신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서사적 장치는 ‘강홍립과 다른 나’를 드러내려는 필요 때문에 서사에 도입된 것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설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상상해 보자. 권척이 아무리 낮은 직책인 이문학관이었다 해도 강홍립의 휘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또 그가 속한 군대가 후금군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항복까지 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권척이 전투 직후 탈출해 조선으로 왔다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적 과거’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이는 강홍립의 귀환 이후에도 적용된다. 권척은 정묘호란 당시 청과의 화의에 극력 반대하다가 역적으로 몰려 처형 당한 이인거의 난 처리 과정에서 공신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돌아온 강홍립이 역심을 품었다는 설정이 없다면, 그와 권척 사이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는 변절자로서의 강홍립에 대한 근거인 동시에 변절하지 않은 나에 대한 근거로서 작자에 의해 ‘사후적으로’ 설정된 것이

13)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17~84쪽.

14) <강로전>에서 밀지와 강홍립의 역심이 갖는 서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조현우, 『<강로전>에 나타난 전쟁의 기억과 욕망의 서사』,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 소명출판, 2013, 162~195쪽.

다. 사후적 설정이란, 작자가 강홍립과 자신에 대한 서사적 결론을 정한 ‘이후에’ 그에 대한 원인이 될 만한 내용을 서사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광해군의 밀지와 강홍립의 역심은 필요 때문에, 그리고 소급적으로 서사에 도입되었다. 작자는 자신의 욕망을 인과적인 서사로 만들어내기 위해 두 가지 설정을 도입했던 것이다. 즉 권칙은 ‘강홍립은 왜 그런 일을 벌였는가?’, ‘나는 실절한 강홍립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어떤 점에서 결코 실절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과거와 현재를 인과적으로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강로전>이 일반적인 전(傳)과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전에서 한 인물의 관련 사적들은 별다른 인과적 연결 없이 나열된다. 이러한 일화들은 각각 그 인물의 포폄(褒貶)과 관련되면서, 결말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강씨 오랑캐의 전’이라는 감정적 제목을 달고 있는 <강로전>은 제목처럼 강홍립에 대한 강렬한 적대적 감정을 담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강홍립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를 바 없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는 자신을 변론하기 위한 글이었다. 이에 따라 서사의 각 사건들은 인과적으로 연결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강홍립을 ‘일관된 악인’으로,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자신을 ‘억울한 희생자’로 만들어낸다.

이 지점에서 <강로전>이 2장에서 살핀 기억 서사의 인과관계 구성과 매우 흡사한 방식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권칙은 자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왜 나는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그리고 현재의 나는 어떻게 강홍립과 같은 변절자와 다른 사람인가에 대한 근거를 회상을 통해 찾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거와 현재의 나, 그리고 강홍립의 변절에 대한 인과적 연결은 사후적이고 소급적인 성격을 갖는다. 권칙은 <강로전>에서 자신의 과거 전체를 돌아보면서 현재

의 내가 변절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위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인과적으로 연결하고자 시도했다. 이때 <강로전>의 서술자는 회상되는 과거의 바깥에서 그 서사 전체를 조망하면서 인과관계를 조율하고 있다. 실절자로서의 강홍립,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자기 자신의 정당성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디에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를 살피고, 필요한 부분에 인과적 논리를 덧붙임으로써 각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조위한(趙緯韓)의 <최척전(崔陟傳)>은 17세기 전기소설의 전환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작자가 남원에 머물 때 최척을 만나 그로부터 ‘듣은’ 이야기를 기록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최척이 자신과 가족이 겪은 몇 십 년 간의 경험담을 떠올려 회상하고, 이를 작자가 받아 적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경험담은 지난 시절에 대한 단순한 회고가 아니다. <최척전>의 또 다른 명칭이 <기우록(奇遇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작품은 여러 나라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등장인물들의 ‘기이한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그러한 만남의 기이함은 편부와 편모 슬 하였던 최척과 옥영의 결합이 어떻게 대기족의 형성이라는 결말로 이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최척전>에서 이러한 기이함을 가능하게 해 준 요인으로는 장륙불의 현신과 예언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장륙불의 기능과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의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¹⁵⁾ <최척전>에

15) <최척전>에서 장륙불의 기능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장륙불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실주의적 성취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장륙불의 역할이 사실주의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장륙불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리고 그 꿈에서 예지된 내용은 언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최척전>의

서 장륙불은 여주인공인 옥영에게만 총 다섯 차례 나타난다. 그런데 다섯 번의 꿈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꿈은 두 아들인 몽석과 몽선이 태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태몽’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머지 세 차례의 꿈은 옥영이 문제적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를 예견해 주는 ‘예지몽’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꿈은 고유한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차이점으로도 구분된다. 태몽의 경우는 꿈에서 장륙불이 알려준 내용이 곧바로 실현된다. 또 이 꿈을 꿀 때 옥영과 최척은 함께 있다. 예지몽의 경우는 최척과 옥영이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 결말에 이를 때까지 장륙불이 언급한 ‘기쁜 일’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이 중 예지몽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각각의 꿈을 꾸기 직전 옥영은 죽음을 결심한다. 그녀의 결심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가령 최척이 떠날 때 옥영은 죽으려 했지만, 최척의 생환 다짐을 믿고 죽지 않았다. 그러나 심하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전멸 수준이었고, 최척이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별다른 근거 없이 꿈에 나타난 장륙불의 막연한 예언만을 믿고 죽을 결심을 철회한다.

그런데 장륙불의 예언이 소설의 결말에 이르러서야 검증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최척과의 기적적인 만남이나 가족의 최종적 재회와 같은 정말 실현되기 어려운 결과가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옥영이 장

선행 연구 중에서 본고에서 참고한 논의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민영대, 『조위한과 <최척전>』, 아세아문화사, 1993, 1~367쪽; 박일용,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최척전>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73~99쪽;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 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쪽; 신해진, 『<최척전>에서의 장육불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6, 343~371쪽.

륙불의 예언을 믿고서 자결을 하지 않았던 일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륙불은 어떤 국면에서 옥영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매우 예외적이고 기대하기 어려운 행운 쪽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장륙불의 예언은 어떤 국면에서 서사적 진행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 방향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실현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다. 장륙불의 예언대로 ‘기쁜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그 예언을 따랐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장륙불의 예언은 예언이 있던 그 시점이 아니라, 가족의 재회라는 최종적 결과 ‘이후에’ 그것에 대한 원인으로 규정된다.

이 지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장륙불이 네 번째로 나타났을 때의 상황이다. 옥영은 장륙불의 현신 이후 단순히 자결을 중지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보인다. 사실 최척은 떠나기 전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조선으로 갔던 것은 장남인 몽석을 만나거나, 삭주의 한 병사로부터 도움을 얻어 풀려나는 것처럼 ‘우연’과 ‘행운’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척의 조선행은 그가 옥영과 헤어질 때만 해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따라서 옥영이 장륙불의 예언을 믿고 최척이 살아 있음을 확신한다 해도, 당시로서의 가장 합리적 선택은 최척을 헤어진 그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지 조선행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옥영은 자결을 중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아들 몽선의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선행을 결심한다. 서사 진행에서 옥영의 조선행은 별다른 개연성이 없었지만, 장륙불의 현신은 그에 대한 내적 설득력을 마련한다.¹⁶⁾

16) 박희병은 작가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데에 대해 자기대로 통일성과 필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장륙불을 도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로 인해 사실주의를 철저히 관찰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박희병(1990), 앞의 논문, 96쪽.

장륙불은 이야기 전체에서 각 단계 사이의 연결을 넘어서서 가족의 재회 자체가 필연적이게끔 만든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필연성이 최종적 재회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즉 조선에서 일본, 조선, 중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두 재회할 때, 비로소 장륙불의 예언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후적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⁷⁾ 여기서 장륙불이 서사 전체의 인과적 연쇄를 위해 설정된, 혹은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서사적 장치임을 알게 된다. 즉 가족의 재회라는 최종적 결말이 인과적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장륙불이 나타나는 꿈, 특히 예지몽이 어느 부분에서 도입되었는가를 새삼스럽게 살피게 된다. 예지몽은 옥영과 최척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 그녀가 예외적이고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만약 장륙불이 현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자. 옥영은 최척과 헤어진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자결 시도로 죽음에 이르렀거나, 최소한 중국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역으로 최척과 함께 있지 않은 옥영을 어떻게 죽지 않게 하고, 또 조선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장륙불의 예지몽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즉 가족의 최종적 재회라는 ‘행복한 결말’¹⁸⁾을 이미 설정한 후 그

17) 이러한 사후적 검증의 양상은 <창선감의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앓’이 미래에 대한 정보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천정 그 자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수단인 된다. 가령, 남채봉과 그녀의 부모인 남표 부부에게는 ‘10년 후의 만남과 복록’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은 10년 후 실제로 그것이 이뤄진 후에야 ‘천정이었음’을 인정받게 된다. 이처럼 <창선감의록>에서 천정의 논리는 ‘예측 가능한’ 것인 동시에 보응 ‘이후에’ 비로소 확인되는 특성을 보인다. 조현우,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천정(天定)과 승부(承負)의 의미』,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155~190쪽.

18) 이종필은 <최척전>에 등장하는 ‘행복한 결말’이 전기소설의 전통을 혁신한 17세기

결말까지 어떻게 각 사건을 인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의 고민이 장륙불의 예지몽을 특정한 지점에 도입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척전>에 등장하는 장륙불의 도입이 앞서 살핀 인과관계의 역전과 대단히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실기 문학에서 인과관계의 역전이 나타났던 것은 최종적 결말로서의 현재 상태와 과거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였다. 즉 결말에서 과거를 살피면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현재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급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장륙불의 예지몽은 가족의 재회라는 결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특히 전란에 참전하는 최척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거나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려는 옥영을 어떻게 조선까지 오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그러한 옥영의 행위와 가족의 재회라는 결말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장륙불의 예언이 필요했던 것이다.

2) 조망하는 서술자와 동시성의 체험

<운영전(雲英傳)>은 17세기 소설사, 더 나아가 고전소설사 전체를 통틀어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전란 이후 폐허가 된 한양의 풍경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몽유자이자 운영과 김진사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듣는 존재인 유영은 폐허가 된 수성궁을 바라보면서 수성궁이 아름다웠던 ‘안평대군 시절’을 떠올리는 인물이다. 즉 이 소설은 처참한 현재

소설사의 전환을 보여주는 징표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17세기 종법적 가부장제 질서가 여성들에게 부과하는 또 다른 질곡의 암시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주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결말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인과적 연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륙불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종필, 『조선 중기의 전쟁과 고소설의 기억』, 소명출판, 2017, 68~95쪽.

와 이롭다웠던 과거를 대비하고,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로 침잠하는 인물의 시선을 보여주면서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유영은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이 회상하는 과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은 회상을 중요한 서사 구성 요소로 채택하고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운영전>에 드러나는 복잡한 액자 구성과 비극적 정조, 그리고 시점(視點)의 착종은 연구사 초기부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서술자인 운영에 대해 '1인칭 전지적 서술자'¹⁹⁾로 명명했던 이유는, 운영이 '나'의 시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도 알 수 없는 일들까지 모두 아는 것처럼 서술한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술자로서의 운영이 갖는 특징적 면모가 과거를 회상하는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운영전>은 몽유구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16세기의 몽유록들과는 다르게 회상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추가한 작품이다. 회상을 하는 시점인 현재의 서술자와 과거의 경험 주체 사이에는 사태의 진행과 그 추이,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에서 '인지 격차'²⁰⁾가 생겨난다. 이 작품은 폐허가 된 수성궁과 안평대군의 비참한 최후를 언급하면서 시작된다. 또 유영이 만난 김진사와 운영은 자신들의 사랑이 생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말하고 난 후 회상을 시작한다. 즉 서술자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회상 속 인물들과 두 사람 사이의 사랑에 대한 최종적 정보를 미리 제공한 후에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1인칭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운영의 진술이 결합될 때, 서술자와 독자는 회상 속 인물들과는 현저한 인지적 격차를 가진 채 서사의 진행을 따라가게 된

19)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쪽.

20) 필자는 <운영전>이 갖는 비극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비극성을 창출하는 서사적 장치로 인물들 간의 '인지 격차'와 '판단 착오'를 언급한 바 있다. 조현우, 「<운영전>의 비극성 연구 - '인지 격차'와 '판단 착오'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65~200쪽.

다. 그리고 이는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을 일어났던 바로 그 시점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이 모두 끝난 이후 그 최종적 의미를 아는 상태에서 평가하는 서술을 가능하게 한다.²¹⁾

그 후 잠시도 잊지 못하고 바보처럼 미치광이처럼 지내다가 속마음을 말과 얼굴빛에 드러내고야 말았으니, 대군의 의심을 받고 다른 궁녀들의 입에 오르내린 일은 실로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니다.²²⁾

위의 인용문은 운영이 김진사의 편지를 받아 읽은 후의 심정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운영전>의 회상하는 서술자가 가진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운영은 자신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심정 때문에 안평대군과 다른 궁녀들에게 그 마음을 들키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런데 안평대군의 의심은 시간 순서로는 김진사의 편지 ‘이후’지만, 서술 순서로는 이미 앞부분에 제시되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운영의 이러한 진술은 이미 앞에서 서술된 사건을 보충하면서 그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를 소급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21)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때부터 밤이면 들어와 새벽에 나가는 일이 날마다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은 더욱 깊어져 이제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담장 안쪽에 쌓인 눈에 발자국이 남아 궁인들 모두 진사가 출입하는 줄 알고 위태롭게 여기고들 있었는데도 말이어요.”(박희병·정길수 편역, 『운영전』,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86쪽.) 이 글에서 서술자는 운영과 김진사의 거듭되는 밀회와 이에 대한 궁인들의 걱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현재의 주체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사건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되풀이 되었다”고 요약하거나, 과거의 경험 주체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머지 궁인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음을 아는 일은 모든 사태가 끝난 후 그 사태의 의미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같은 책, 62쪽.

점에서 선후와 인과가 역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서술자 운영의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 그 시점에서 말하지 않는다. 운영은 그 시점의 슬퍼하는 자신과 그 이후 자신이 의심받았던 일 모두를 고려하면서 회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운영은 어떤 사건을, 일어난 그 시점에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서술자가 아니다. 운영은 과거의 이야기 ‘바깥’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 알고서 과거를 회상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과거 속 각 사건의 의미를 요약할 수도 있고 그것이 결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지점에서 운영이 왜 ‘1인칭 전지적 서술자’로 규정되었던가를 새삼스레 떠올리게 된다. 운영은 1인칭으로 과거를 서술하면서도, 자신이 함께 있지 않았던 김진사와 무녀의 만남이나 남궁에서의 궁녀 모임을 생생하게 서술한다. 이때 운영은 ‘이곳’에 있으면서 ‘같은’ 시간에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진술한다. 즉 운영은 자신이 있는 공간 ‘밖’의 다른 공간에서 흐르는 시간을 동시에 체험하고 서술한다. 운영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시간을 동시에 서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가 과거의 인물인 동시에 현재의 서술자이기 때문이다. 즉 운영은 과거의 사태 ‘안’에 있으면서 그로 인해 인지적·공간적 제약을 받는 인물인 동시에, 그러한 사태가 모두 종결된 이후 그 시간과 공간 ‘밖’에서 모든 것을 알고 진술하는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했던 것은 물론 회상이라는 서술 방식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운영전>에서 서로 다른 두 공간에서 함께 흐르는 추상적인 시간의 동시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서술자로서의 운영은 회상되는 과거 이야기 바깥의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 이곳과 저곳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 역시 회상 속의 인물들이 가진 정보나 인지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즉 서술자 운영의 진술을 따라가는 유영과 독자는 회상되는 과거 속 인물들의 인지 범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에 갇혀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최척전>에도 이러한 ‘동시성의 체험’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척전>에서 동시성의 체험은 <운영전>처럼 추상적인 시간과 관련되면서도 ‘공간’, 특히 내셔널한 공간의 분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최척전>의 앞부분에서 최척과 옥영은 서로 결연하게 되는데, 이는 전기적 전통과 관련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척전>은 최척의 참전과 그로 인한 가족이 이산하는 지점부터 기존의 전기소설과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그리고 최척의 가족은 조선 ‘안’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조선 ‘밖’의 지역에서도 재회를 열망한다.

최척과 옥영이 헤어진 이후 최종적 재회에 이르기 전까지 두 사람의 서사는 분리되어 진행된다. 남원에서 결연한 최척과 옥영은 정유재란 때 서로 헤어진다. 최척은 가족들이 모두 왜적에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서 명나라 사람인 여유문을 따라 중국으로 들어간다. 최척은 여유문과 요흥에서 살다가 그가 죽은 이후 중국의 명소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베트남까지 가게 된다. 최척의 서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서술자는 곧바로 그와 옥영이 헤어지던 시점으로 이야기를 돌린다. 그리고 옥영이 왜인 돈우를 만나 그와 함께 장사를 다니다가 베트남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즉 서술자는 최척이 베트남에 올 때까지 진행된 시간과 ‘같은’ 시간 동안 옥영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이 몽선을 낳고 20여년 간 항주에서 같이 살다가 심하전투에 최척이 참전하게 되면서 헤어지고 난 이후도 마찬가지다. 최척은 전투

가 끝난 후 포로가 되었다가 몽석을 만나고 조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서술자는 고향에 도착한 최척에 대해 언급한 후 곧바로 최척이 떠난 직후 시점의 항주로 시간을 되돌린다. 그리고 옥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항주를 떠나 이곳저곳을 표류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조선으로 와 가족이 재회하게 되는가를 서술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척이 조선에 도착하기까지의 바로 그 시간 동안 옥영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서사의 초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가는 독자들은 최척과 옥영이 서로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것에 공감하고, 동시에 그들이 겪는 위기에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와 서사 속 인물 사이에는 명백한 인지적 격차가 생겨난다. 독자들은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최척이 살아 있고 몇 차례의 행운을 통해 고향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안다. 그러나 최척과 옥영은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서로의 생사에 대해서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독자는 인물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게 된다. 가령, 옥영이 최척이 죽었다고 믿고 자결하려 할 때, 독자의 긴장감은 높아진다. 그 이유는 독자가 최척이 죽지 않았고 고향 땅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옥영이 장륙불의 예언에 따라 조선행을 결심할 때, 독자는 무리한 결정이라며 반대하는 몽선과는 달리 그 결정이 올바른 것임을 알고 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해 교대로 서술되는 과정을 통해 최척이 이러저러한 일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옥영은 다른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최척과 옥영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 해도, 두 사람은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된다. 즉 최척이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한편’ 같은 시간 옥영은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과 무관하게 흐르는 추상적이고 균질적인 시간이자, 두 사람을 포함한 어떤 거대한 공간을 상정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

리고 최척과 옥영의 분리된 서사를 읽는 독자들은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행위를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존재하면서, 추상적인 동시성을 체험하게 된다.²³⁾

4. 조감의 시선 출현과 그 의미

이 글은 전란의 기억과 서사화가 17세기 소설사의 변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어떤 일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시기에 새롭게 생겨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억 서사는 투명하거나 중립적인 기억이 아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시기의 기억들은 대체로 자기 정당화의 욕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겪은 전란을 기억하면서, 전란에서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록한 글이다. 더구나 포로실기는 타자와의 접촉을 기록한 것이자, 그 글을 읽을 예상 독자들에게 일본에서의 피로 생활이 글을 쓰는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입증하려 이루어진 회상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주체는 자기 정당화와 같은 서사적 지향에 따라 자신

23)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서구에서 근대적 소설의 탄생은 새로운 시간 관념의 출현 및 그로부터 비롯된 특유의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이러한 리얼리즘이 '한편'(meanwhile)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기에, 근대적 소설은 '한편'이라는 말에 대한 복잡한 주석이라고 언급한다. '한편'이란 말은 추상적인 동시성을 표현한다. 가령 어떤 소설 속에서 'A와 B가 말다툼할 때, C와 D는 사랑을 나눈다.'는 서술이 있다고 하자. 이때, A와 B, 그리고 C와 D는 서로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동시성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 말은 다양한 공간들을 포함하는 추상적이고 균질적이며 거대한 어떤 전체적 공간을 전체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한편'이라는 말이 사용되려면 서술자 혹은 독자는 바로 그 추상적인 공간을 파악할 수 있는 초월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길, 2018, 19~67쪽; 오사와 마사치, 김효진 역, 『책의 힘』, 오월이봄, 2015, 60~145쪽.

이 겪은 사건들을 배열한다는 점에서 ‘줄거리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은 단순히 있었던 일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배제는 결국 나는 왜 현재의 내가 되었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현재의 나’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과거의 사건들을 선택하여 인과적으로 배열하는 과정인 셈이다. 사건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택 혹은 배제해 인과적으로 배열하는 회상을 위해서는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들을 소급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위치’와 ‘시선’이 필수적이다.

이때 특정한 위치에서 서사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이 드러나게 된다. 회상담이란 기억의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일이다. 이야기되는 과거는 자신이 겪은 일 혹은 전란 체험과 같이 일정한 경계를 갖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그 경계의 ‘바깥’도 생겨난다. 경계 ‘안쪽’, 즉 줄거리를 짜고 사건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바깥’에서 진술하는 위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소설에서 서사적 진행, 즉 사건과 사건의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몰입은 서사의 ‘바깥’에서 그 서사를 진술하고 평가하며 인과적 연쇄를 만드는 어떤 위치에 대한 감각에서 만들어졌다.

또 서사 바깥에서 서사를 진술하는 일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서사적 사건들을 ‘동시에’ 조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특히 포로실기에서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은 일본과 조선의 시간을 동시에 경험했다. 즉 내셔널한 경계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두 곳에서 흐르는 시간을 체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시성의 체험은 <최척전>이나 <운영전>에 등장하는 서술자의 시선과 대단히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최척전>에서 최척과 옥영의 헤어짐과 헤어진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을 차례로 보여주는 서술자의 위치는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동시성에 대한 감각으로서의 조감의 시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위치에서 서사를 조망하는 시선을 ‘조감(鳥瞰)의 시선’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굳이 ‘조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야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그 이야기가 인과적 연쇄를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감각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조감의 시선은 서술자와 그로부터 정보를 받는 독자가 서사 속 인물들과는 명백한 인지적 격차를 갖도록 만든다. 이러한 서술자와 독자는 각각 ‘전지적 서술자’와 ‘전지적 독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감의 시선, 전지적 서술자와 전지적 독자의 출현은 17세기 소설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지적 독자와 조감의 시선은 결국 서술자의 태도 변화인 동시에 독자가 갖는 인지적 범위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척과 옥영이 헤어져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이러한 이야기에서 각각의 사건과 그 연결, 그리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조감의 시선을 통해 서사를 진술하는 서술자와 그 서사를 읽는 독자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사의 진행 그 자체가 된다. 즉 각 국면의 인물 심리보다는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연결은 결국 어떤 결말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사가 된다.

조감의 시선과 전지적 독자의 출현이 갖는 특성을 이전 시기 소설과 비교해 보자. 가령, <이생규장전>의 경우, 독자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는 서술자의 시선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서술자는 각 국면의 사건을 인물의 시선을 좇아 기술하기에 서사 속 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사건이 결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생이 담장을 엿본 일’이 제목으로 채택된 이유는 서사가 종결되고 난 후에야 알 수 있다. 이때 그 ‘읽’과 이 작품이 주는 감동은 서사의

‘줄거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의 감동은 ‘세계의 황포’를 경험한 인물과 현실에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독자 사이의 공명(共鳴)에서 온다. <이생규장전>을 우의적으로 읽었던 오래된 독법은 바로 이러한 공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세기 전기소설이 그 이전 시기의 전기소설과 달라진 점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이전 시기 전기소설의 서술자가 ‘기이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의사 보고자적 거리를 취하면서도 주관적이고 감정이입적 공감을 투사하는 ‘양가적 태도’를 취했다면, 17세기의 전기소설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 대신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자체가 전경화되면서 ‘전지적인 몰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²⁴⁾ 그렇다면 그와 같은 전지적인 몰입을 만들어내는 서술자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더 나아가 인물의 내면 심리 대신 사건이나 행동을 전경화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사적 장치를 통해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 글에서 살핀 조감의 시선이란 서사 전체를 조망하는 시선으로, 인과적 연쇄에 대한 강조와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동시성의 체험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시선은 결국 서사 ‘바깥’에서 서사를 조망하는 감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은 대체 어떻게 출현하게 된 것일까? 서구에서 ‘네이션’, 즉 국민(國民)의 등장과 소설이 거의 동시에 출현했다는 지적은 이러한 감각이 어떻게 17세기 조선에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적은 소설의 내용이나 소재가 아니라, 소설을 가능하게 한 어떤 형식이나 감각이, 자신을 국민의 일부로 상상하게 해주는 어떤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일컫는 것이다.²⁵⁾ 네이션은

24)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 분석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43~272쪽.

그 이전의 공동체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네이션을 구성하는 국민들은 서로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간접적으로 알게 될 일도 없다. 이는 네이션 이전의 공동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들이 서로가 ‘하나’의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상상할 때, 그 감각은 앞서 살핀 ‘한편’이라는 표현과 같은 동시성의 체험과 관련된다. 이러한 동시성의 체험은, 독자와 작자의 시점이 서사 속 인물이 소속된 공간의 ‘바깥’에 놓인 위치에 놓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16~7세기의 전란을 체험한 사람들, 특히 조선을 떠나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바깥’의 위치와 네이션의 문제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던 강항은 <고부인격(告俘人檄)>²⁶⁾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그는 지역과 반상(班常)을 넘어서 ‘부인(俘人)’들에게 함께 일본을 떠나자고 권고한다. 강항이 말을 거는 ‘부인’들은 고향을 떠나 포로가 되어 일본에 와 있는 조선인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때 고향이란 함평이나 부산 등의 구체적 지역이 아니라 조선을 의미했다. 강항의 이 글에서 조선은 몇 개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덩어리로서 만들어진 다. 강항은 눈앞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고, ‘객(客)’과 같이 한문 글쓰기에서 관습화된 허구적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도 아니다. 그가 말을 거는 대상은 특정한 경험을 통해 강제적으로 구성된 어떤 대상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강항의 위치도 그 이전까지의 어떤 글과도 다른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강항은 이전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상상의 공동체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25) 오사와 마사치, 위의 책, 105~114쪽.

26) 강항, 이을호 역, 『포로들에게 알리는 격문(告俘人檄)』, 『간양록』, 서해문집, 2005, 155~161쪽.

강항의 사례를 참고할 때, 17세기 소설에 나타나는 조감의 시선이 전란의 기억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회상하는 주체가 과거의 서사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려 시도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성의 체험은 모두 서사의 ‘바깥’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사의 바깥에 대한 감각은 어떻게 사건들의 인과적 연쇄로 결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을 가능하게 했다. 또 이는 그러한 연쇄 자체에 대한 몰입, 즉 사건들의 연결에 대한 전지적 몰입을 만들어냈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소설에 나타나는 조감의 시선은 이 시기에 일어난 소설사적 변화 양상을 설명해주는 것인 동시에, 전란 체험이 어떻게 소설의 창작과 향유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16~7세기의 전란 체험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서사화와 소설 쓰기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했다. 이는 전란의 체험과 그 기억이 소설의 창작 및 향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전란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서사화 방식에 먼저 주목했다. 회상, 특히 전란에 대한 회상은 순수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전란이 끝난 이후,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무엇인가가 그렇게 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피로인들의 실기 문학은 바로 그러한 욕망과 기억 사이의 상관성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였다. 전란의 기억이 ‘현재의 나’가 가진 욕망과 결합하여 서사화될 때, 다시 말해 ‘과거’를 ‘현재’의 시선에 맞추어 기억하고자 할 때, 그 기억의 기록은 허구와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2장에서는 전란의 회상에 드러나는 독특한 서술 방식의 문제를 살폈다. 자기 정당성 확보의 욕망에서 기록된 실기 문학은 어떻게 과거의 사태들로부터 현재의 자신이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서술 방식을 만들어낸다. 이때 과거에서 현재 상태의 원인을 발견하는 사후적이고 소급적 방식의 인과관계가 생겨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단 만들어지면 그것이 결과에서 출발해 발견된 원인임이 망각되고, 자연스러운 인과적 연결처럼 간주된다. 이는 회상되는 과거 바깥의 초월적 위치에서 과거부터 현재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또 이러한 위치는 고국과 일본이라는 내셔널한 공간의 분리와 추상적 시간에 대한 동시성의 체험에서도 발견된다.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은 일본과 조선에서 흐르는 시간을 동시에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3장에서는 17세기 소설들 몇 편을 대상으로 그 속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서술 방식을 검토했다. 이는 이 시기의 소설들의 변모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실기 문학에서 발견된 서술 방식과의 상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강로전>과 <최척전>에서는 소급적 인과관계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척은 밀지와 강홍립의 역심이라는 설정을 서사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강로전>은 강홍립을 일관된 악인으로, 그리고 작자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로 형상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최척전>의 장륙불은 가족의 최종적 재회를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마다 도입된 설정이었다. 두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후적 인과관계의 설정은 결국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다음으로 <운영전>과 <최척전>에서 동시성의 체험이 나타난다는 점

을 지적했다. <운영전>의 서술자는 1인칭이면서도 다른 회상 속 인물들과는 현저한 인지적 격차가 있는 전지적인 서술자였다. 서술자로서의 운영은 회상되는 과거 바깥에 위치하면서 여러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두 알고 서술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흐르고 있는 추상적인 시간의 동시성이 발견된다. <최척전>에서 최척과 옥영은 몇 번의 이산을 경험한다. 이때 헤어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해 서로의 안부조차 알지 못한다. 서술자는 최척과 옥영이 재회할 때까지 두 사람의 각기 다른 공간에서의 행동을 번갈아 그러나 동시적으로 서술한다. 즉 최척이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 그 시간에 옥영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서술한다. 이때 서술자는 두 사람이 있는 공간을 모두 조망하는 위치에서 추상적인 시간의 동시성을 서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초월적 위치에서의 서술을 ‘조감의 시선’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그러한 시선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폈다. 실기 문학에서 자기 정당화의 욕망으로 회상하는 주체의 위치와 17세기 소설에서 결말을 향해 인과적으로 사건을 연결하는 서술자의 위치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때 특정한 위치에서 서사 전체를 조망하는 조감의 시선이 드러나게 된다. 회상담이란 기억의 주체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일이다. 진술되는 과거가 내가 겪은 일 혹은 전란 체험 등으로 일정한 경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경계는 곧 경계 ‘바깥’을 만들어낸다. 그 이야기 ‘바깥’에서 기억하고 회상하며 진술하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7세기 소설에서 서사적 진행, 즉 사건과 사건의 연결 그 자체에 대한 몰입은 서사의 ‘바깥’에서 그 서사를 진술하고 평가하며 인과적 연쇄를 만드는 어떤 위치에 대한 감각에서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 강항, 이을호 역, 『포로들에게 알리는 격문(告俘人檄)』, 『간양록』, 서해문집, 2005, 155~161쪽.
- 류성룡, 김시덕 역해, 『교감·해설 정비록』, 아카넷, 2013, 99~665쪽.
- 박희병·정길수 편역, 『운영전』, 『사랑의 죽음』, 돌베개, 2007, 29~109쪽.
- 정경득, 신해진 역, 『호산만사록』, 보고서, 2015, 23~318쪽.
-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한국 고전소설과 정신분석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243~272쪽.
-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09, 149~211쪽.
- 권혁래, 『조선 후기 역사소설의 성격』, 박이정, 2000, 1~248쪽.
- 김경남, 『서사문학의 전쟁 소재와 그 의미』, 보고서, 2007, 1~319쪽.
- 김종철, 「고전소설사에서의 17세기 소설의 위상」, 성현경교수 추모논총간행위원회,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서, 2011, 85~138쪽.
- 민영대, 『조위환과 <최척전>』, 아세아문화사, 1993, 1~367쪽.
- 박일용, 「장르론적 관점에서 본 <최척전>의 특징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73~99쪽.
- 박희병, 「<최척전>-16,7세기 동아시아의 전란과 가족 이산」,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83~106쪽.
- 신해진, 「<최척전>에서의 장육불의 기능과 의미」, 『어문논집』 35,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96, 343~371쪽.
- 요네타니 히토시, 「사로잡힌 조선인들 - 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85~112쪽.
- 윤인현, 「<해상록>과 <정유피란기> 연구-일본 풍물 및 일본인 인식과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2, 근역한문학회, 2011, 139~173쪽.
- 이종필, 『조선 중기의 전쟁과 고소설의 기억』, 소명출판, 2017, 68~95쪽.
- 정출현,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 한국고전번역원, 2013, 5~36쪽.
-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쪽.
- 조용호, 「정유재란 포로 실기 속 한시에 투영된 화자 의식」, 『한국고전연구』 45, 한

국고전연구학회, 2019, 133~180쪽.

조현우, 『<강로전>에 나타난 전쟁의 기억과 욕망의 서사』,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소설사연구반, 『서사문학의 시대와 그 여정』, 소명출판, 2013, 162~195쪽.

조현우, 『포로실기에 나타난 전란의 기억과 자기 정당화』, 『민족문화사연구』 54, 민족문화사학회, 2014, 185~214쪽.

조현우,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천정(天定)과 승부(承負)의 의미』,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155~190쪽.

조현우, 『<운영전>의 비극성 연구 - ‘인지 격차’와 ‘판단 착오’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65~200쪽.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17~84쪽.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상상된 공동체』, 길, 2018, 19~67쪽.

오사와 마사치, 김효진 역, 『책의 힘』, 오월의봄, 2015, 60~145쪽.

자크 데리다, 진태원 역, 『법의 힘』, 문학과지성사, 2004, 11~62쪽.

ABSTRACT

A Study on the Retrospection and
the Perspective of Bird's-eye View in 17th-century Novels

—Focusing on *Unyoungjeon*(雲英傳), *Choichukjeon*(崔陟傳) and *Gangrohjeon*(姜虜傳)

Cho, Hyun-woo

This paper explores how the wars and the narrativization of their memories correlate to the changes in 17th-century novels. Writings that remember and record war usually take the form of retrospection. In order to retrospect war in the past, we have to need two egos: the past self and the present self. The retrospection is the literary device in a narrative, in which a past event is narrated at a point later than its chronological order in a story. I think that the great change in 17th-century novels is closely related to the birth of a sense of the position in which the whole story can be viewed outside the narrative. In this paper, I named such a position 'the perspective of bird's eye view'. The perspective of bird's-eye view is an elevated view of an object from above, with a perspective as if the observer were a bird. I have referred to time reversal causality and the experience of simultaneity as a change in the history of 17th-century novels that relates to the perspective of bird's eye view. Time reversal causality is a causal relationship created in an ex post and retrospective way of discovering the cause of the present state in the past. Time reversal causality is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creating a narrative to secure one's legitimacy when remembering and recording the war. It is the process of retroactively creating causality between events for the final purpose of the narrative. Simultaneity arises from experiencing the homogeneous and empty time flowing between two events in different places. Two events which happened simultaneously and even in separate places can link the people involved in those events

by this precise simultaneity, and those people share a consciousness of a shared temporal dimension in which they co-exist. The perspective of bird's eye view is found in both narratives that remember the war and 17th-century novels, and this sense of the position in which the whole story can be viewed outside the narrative was the important cause of changes in the 17th-century novels.

Key Words

Records of POW, War, Time Reversal Causality, Experience of Simultaneity, the Perspective of Bird's-eye View

논문투고일 : 2019.10.15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